

학교폭력 분노·상처 법원이 치유한다

광주가정법원 소년범 화해권고 시행 5년...성립률 83%

피해·가해자 고충 상담...사과·용서 통한 회복 유도

지난해 4월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A군은 같은 반 친구 B군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수시로 폭행에 시달렸고, 돈도 빼앗겼다. A군은 폭력의 악몽 탓에 병원을 찾았고, A군의 부모는 이 사실을 학교에 알렸다. 이로 인해 B군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전학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군은 여전히 악몽에 시달렸고 부모는 경찰에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그로부터 4개월 뒤 A군은 집 근처 공원에서 소스라치게 놀랐다. B군을 본 것이다. A군은 황급히 숨었지만, 옛날 일이 떠오르며 공포가 엄습하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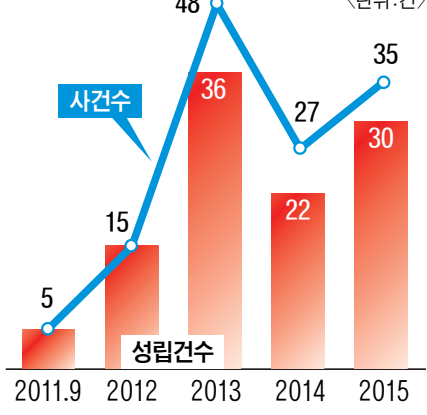
그러던 차에 지난해 10월 법원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사건을 맡은 소년부 판사가 화해권고를 제안했다. 법원은 "아들의 상처 회복 차원에서라도 가해자 측의 사과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화해를 권했고, A군 부모는 마지못해 불편한 만남을 하기

에 이르렀다. 피해소년 A군과 가해소년 B군은 따로따로 자신의 행동과 상대의 고충을 상담하고, 1개월 뒤 법원에서 함께 마주앉았다. B군은 자신의 행동 때문에 A군이 그토록 고통에 시달렸는지 깨닫게 됐고, A군은 B군의 진정한 사과에 그를 용서했다. B군은 A군에게 '앞으로 수호천사가 돼 주겠다'며 용서를 구했고, A군은 B군을 껴안았다.

12일 광주가정법원에 따르면 소년보호 재판에 넘겨진 학교폭력 사건 등에서 '가해자의 사과, 피해자의 용서'로 해결하는 소년범상 화해권고제도가 2011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판사와 갈등해결 전문가(변호사·상담사·교육계)가 나서 가해소년과 피해소년을 화해하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양측이 모두 동의해야만 진행된다. A군 사건은 학교에서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내려졌지

■ 광주가정법원 화해권고 사건 및 성립 현황 (단위:건)



만, A군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 화해권고를 진행한 사례다.

광주가정법원에서는 지난 5년간 총 130건의 화해권고를 진행해 108건에 대해 화해를 성립했다. 화해성립률이 83.1%에 달했다. 10건 중 8건 이상 가해자와 피해자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한 것이다. 연도별로는 제도 시행 첫해인 2011년 15건을 진행해 모두 화해성립 했다. 2012년 15건 중 15건, 2013년 48건 중 36건, 2014년 27건

중 22건, 2015년 35건 중 30건이 성립됐다. 화해가 성립되면 대부분 사건 처리를 하지 않거나(불처분), 1호 처분(보호자 위탁)을 한다. 실제 광주가정법원에서 진행한 화해성립 108건 중 불처분이 42건, 1호 처분이 46건에 달했다.

이는 이 제도가 장벽이 아니라 회복·복지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가해소년은 스스로 잘못을 깨닫게해 재범하지 않도록 하고, 피해소년은 진정한 사과를 받음으로써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인 것이다.

화해권고 위원인 채현숙 유쾌가족과 성장담소 소장은 "물을 쏟으면 쏟은 아이에게 물을 닦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될 잘못을 통해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깨달아 재범하지 않도록 하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를 받음으로써 상처 치유와 용서의 과정을 거쳐 서로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게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동식물 이름 '모야모'에 물어봐 무등산사무소 안내서비스

'무등산에서 마주친 동식물의 이름이 궁금하다면 '모야모'에 물어보세요.'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주)모야모와 협력해 '국립공원·모야모'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모야모는 동식물의 이름과 특징을 알려주는 스마트폰 앱(애플리케이션)이다. 탐방객들이 무등산을 비롯한 국립공원에서 본 동식물 사진을 찍어 모야모에 올리면, 국립공원관리공단 전문가 등이 실시간으로 이름과 특징 등을 알려준다.

국립공원 모야모 앱은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 애플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설치할 수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전교조 광주지부장 직권면직

정성홍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광주지부장이 해직됐다.

1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 10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정 지부장에 대해 직권면직 결정을 내렸다. 직권면직은 교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으로, 사실상 해직 처분이다.

정 지부장은 인사위원회에 참석해 소명 절차를 밟았으며,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직됐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1일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 지부장에 대한 직권면직을 가결한 바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세월호 '선수 들기' 작업

12일 진도 세월호 침몰해역에서 중국 인양업체인 상하이셀비지호가 세월호 인양을 위한 핵심 작업인 '선수 들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선수 들기는 세월호 선체 하부에 리프팅 빔을 설치하기 위해 부력을 확보한 뒤 세월호 선수를 약 5도 들어 올리는 작업이다. 뱃머리를 들어 올린 뒤에는 그 아래로 리프팅빔 19개를 한꺼번에 집어넣고 다시 내리는 작업이 4일간 진행된다.

12일 진도 세월호 침몰해역에서 중국 인양업체인 상하이셀비지호가 세월호 인양을 위한 핵심 작업인 '선수 들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선수 들기는 세월호 선체 하부에 리프팅 빔을 설치하기 위해 부력을 확보한 뒤 세월호 선수를 약 5도 들어 올리는 작업이다. 뱃머리를 들어 올린 뒤에는 그 아래로 리프팅빔 19개를 한꺼번에 집어넣고 다시 내리는 작업이 4일간 진행된다.

피해나 기름 유출 등 해양오염은 없었다. 부정이 화물선인 이 배는 사고 당시 횡도에서 출항해 흑산도로 임항 중이었으며 사고 해역 주변에는 국지성 안개가 끼었다.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B씨를 찾기 위해 이 일대에서 수색 작업을 진행중이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kwangju.co.kr

흑산도 해상 선박 충돌 부부 사망·실종

12일 오전 10시 30분께 신안군 흑산면 북쪽 1km 해상에서 438t급 화물선(목포선적)과 2.8t급 소형어선(선외기·흑산도 다물도선적)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여선

이 침몰해 선장 A(65)씨가 실종됐고 아내 B(여·55)씨는 사고 직후 화물선 선원들에 의해 구조됐으나 끝내 숨졌다. 화물선에는 총 9명이 타고 있었으며 인명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17
해질녘 19:48
달 뜨기 13:13
달 질기 00:59

소나기 피하세요
많다가 오후들어 구름많이 끼겠다. 곳에 따라 소나기도 예상된다.

◇ 지역별 날씨 (°C)

광주	맑음	21/30	보성	맑음	20/28
목포	맑음	20/26	순천	맑음	20/28
여수	맑음	21/25	영광	맑음	19/28
나주	맑음	20/31	진도	맑음	19/27
완도	맑음	20/27	전주	맑음	20/30
구례	한때소나기	19/29	군산	맑음	18/25
강진	맑음	20/29	남원	맑음	21/30
해남	맑음	19/29	홍산도	한때소나기	17/22
장성	맑음	19/29			

◇ 바다 날씨

방향	오전		오후	
	파고(m)	풍향	파고(m)	풍향
서해안	북~북동	0.5	서~북서	0.5
남해안	북~북동	0.5~1.0	서~북서	0.5~1.0
남해안	북서~북	0.5	서~북서	0.5
남해안	북서~북	0.5~1.5	서~북서	0.5~1.0
서부	북서~북	1.0~1.5	북서~북	1.0~1.5

◇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8:14	01:03
	20:50	13:59
여수	02:58	09:27
	16:09	21:55

◇ 주간 날씨

날짜	14(화)	15(수)	16(목)	17(금)	18(토)	19(일)	20(월)
날씨	☀	☁	☀	☀	☀	☀	☀
기온	20/30	21/27	20/26	19/29	20/29	19/29	20/28

◇ 생활지수

- 경고: 식중독
- 매우높음: 자외선
- 보통: 미세먼지

법원 "김정희 교수, 천경자 화백 친딸 맞다"

김정희 미국 메릴랜드주 몽고메리대 미술과 교수가 지난해 별세한 천경자 화백의 법적 친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김수정 판사는 10일 김 교수와 그의 동생인 김중우 씨의 아들이 낸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 판사는 "천 화백의 아들과 김 교수 사이에 실시한 유전자 검사에서 두 사람이 동일한 모계에 의한 혈연관계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 교수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한 천 화백의 '미인도'가 위작이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친자 관계를 인정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천 화백은 첫 남편과 사이에서 1남1녀를 낳고 두 번째 남편인 김남중(별세)씨를 만나 정희씨와 중우씨를 낳았다고 자서전에 쓴 바 있다. 김남중씨는 당시 법적 부인이 있어 김 교수 남매는 아버지 부부의 자녀로 호적에 올랐다.

김 교수는 천 화백이 숨진 이후인 지난 4월 바르토메우 마리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6명을 사자명예훼손, 저작권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연합뉴스

폭염특보 발령되면 단축수업·임시휴교

교육부 9월까지 시행

교육부는 단축수업, 임시휴교 등의 내용이 담긴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해 9월30일까지 시행한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오후 1~5시에 체육 활동을 자제하고 시원한 곳에서 쉬도록 하는 '무더위 휴식 시간제'(Heat Break)가 운영된다.

하루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를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할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상황에 따라 등·하교 시간 조정과 임시 휴교 조치를 검토한다.

의보가 발령되면 비상연락망이 가동된다.

학교는 단축수업을 검토하고 체육 활동 등 실외·야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학교 급수와 급식의 위생관리도 강화해 식중독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를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상황에 따라 등·하교 시간 조정과 임시 휴교 조치를 검토한다.

/연합뉴스

GWANGJU HEARING AID CENTER
광주 보청기난청센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보이지 않는 보청기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뽁뽁~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362-3336 (광주 돌고개역 2번출구 대형약국 3층)

통계청 호남지방통계청

2016 경제총조사

함께해요! 경제총조사

2016년 6월 7일 ~ 7월 22일

경제총조사란?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 대한 고용, 생산, 투입(비용) 등에 관한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동일 시점에 통일된 조사 기준으로 5년마다 실시하는 정부 승인 통계입니다.

사업체 정보 유출, No!

대한민국 모든 사업체가 응답하는 조사입니다

- 조사 대상: 우리나라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 조사 기간: 2016년 6월 7일부터 7월 22일까지

인터넷 조사 (6.7~6.30)
응답자가 경제총조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조사표를 직접 입력하는 방법

방문면접조사 (6.13~7.22)
인터넷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사업체를 조사원이 방문하여 조사표를 작성하는 방법

문의 사항
080-200-2016(무료)
월~토 09:00 ~ 20:00
홈페이지
(www.ecensus.go.kr)